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89호 The Seungni Shinmun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특별기고문

한류(韓流)와 메시아

지금 한류(韓流)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전 세계의 큰 언론 매체에서 하루도 대한민국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한류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시작하여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무술, 산업 등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며 알려지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 드라마가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퍼져 나갔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국가 간 여행이 현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오히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BTS)이 21세기 팝 아이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상승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다수가 한국은 미래도시, 천국과 같다고들 말한다. 이 같은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현상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을 것인즉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근본적인 것을 탐구하여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발전을 향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더타임즈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을 통해 지난 5년간(2017~2021년) 화장품·음악·방송 등 한류 밀접 품목(이하 한류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 총 3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세계만방에서 대한민국으로 몰려와

격암유록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이미 약 500년 전에 말하고 있으니 놀랄 만한 일이다. 격암유록의 주인공은 정도령이며 궁을십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메시아, 미륵불, 구세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정도령이 금꽃을 피우니 세계만방에서 나비가 꽃을 보고 노래하며 춤추며 날아온다."라고 하고 있다.

금꽃이란 감로해인을 말하며 살마광선(殺魔光線)이다. 어둠의 신인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정도령이 그 감로해인을 임의용지하여 빛을 발하니 세계만방에서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모국이요 진리의 중심국이요 문화의 중심국이라고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그대로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이 몰려온다는 말이 되겠다. 물론 그 빛은 영적인 의미로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다. 다만 정도령이 산꼭대기에 숨은 듯이 엎드려서 천하를 뒤흔든다고 한다.

피란의 근본은 메시아 정도령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오천 년 전부터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며 메시아 절기를 지켜왔는데, 가짜 구세주가 나와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격암유록 생초지락에서는 "메시아는 20세기 후반에 출현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미 출현하였다는 말이다. 이미 출현한 메시아는 '시비(是非) 많은 진인(眞人)'이라는 말처럼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옳다 그르다 말들이 많다."라고 하였다. 격암유록에서는 메시아를 궁궁을을 정도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사람이 쉽게 주인공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여 에덴동산 천국이 파괴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해와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섬으로써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 각기 남자 여자가 되어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이 궁궁(弓弓)으로 오시어 잃어버린 에덴동산 천국을 되찾기 위해 전도관(傳導館)을 세워 불사영생의 도를 을을(乙乙)에게 전하고 도를 전해 받은 을을이 궁궁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침내 궁궁을을 정도령 메시아로 나오게 되었다. 마귀를 이겼다는 의미로 승리제단을 세워 정도령 메시아가 지상에 불사영생의 신선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세우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는가? 격암유록을 잘못 해석하여 앞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피란지본도재심(避亂之本都在心)이라고 피란의 근본은 메시아 정도령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고 하였다. 메시아 정도령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권능이 없다면 메시아 정도령이 될 수 있겠는가?

오묘일걸 단동불출은 곧 삼일병화 만국통합

현실적으로 메시아 정도령은 지구상의 크나큰 문제를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천지공사의 큰 줄기를 말해본다면 격암유록 승운론(勝運論)에서 "백서중심전후삼(白鼠中心前後三)을 심각자(心覺者)가 누구런가"라고 하는데 이는 경자(庚子) 이전인 정유무술기해(丁酉戊戌己亥), 경자 이후인 신축임인계묘(辛丑壬寅癸卯)까지 정도령의 중요한 천지공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세상의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윷놀이에 빗대어 오묘일걸(五卯一乞) 단동불출이라 하였다. 모 다섯에 걸 한 번이면 윷말 넉동이 하나가 되어 한꺼번에 윷놀이가 끝나게 된다. 이를 천지비밀에 붙여 두었다. 을묘정묘기묘신묘계묘(乙卯丁卯己卯辛卯癸卯)가 오묘이며 일 걸은 세 칸을 뛰니 갑진을사병오(甲辰乙巳丙午)가 되어 윷판을 끝내게 된다. 이는 곧 삼일병화 만국통합(三日兵火 萬國統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삼일이 일 걸이니 갑진을사병오(甲辰乙巳丙午)가 된다. 만국통합속에 남북통합이 있음은 물론이다.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요 오미락당당(午未樂堂堂)이다.

이로써 윷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니 바야흐로 천지공사의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 흥진비래(興盡悲來)라고 고생 끝에 좋은 결과가 오지만 흥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기존의 윷판이 끝나면 새로운 판이 열리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 변화 즉 천지개벽으로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 있다.

빛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안목과 아집에 빠져 길을 잘못 들어 정도(正道)를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진리와 생명을 영영 놓치게 되리라. 오직 메시아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긴 후라야 대자대비의 신천신지라는 빛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구세주 정도령님의 권능과 5대공약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대한민국

동서양의 모든 경전과 예언서에는 동방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중에서 성경과 불경과 한민족의 대예언서 격암유록에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구세주, 생미륵불, 정도령이 출현하여 감로 이슬성신을 들고나와서 삼재팔란의 시기에 천질과 흑사괴질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특히 격암유록 생초지락편에는 20세기 후반에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으며(사41:1~9), 계시록에는 이긴자가 출현하여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만나와 생명과일을 가지고 나와서 먹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다(계2:7~3:21).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새로운 보혜사 성령 되시는 이 세상 임금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요14:16~30).

참 메시아 되시는 생미륵불, 구세진인 정도령은 모두 한 분으로 오시며, 그가 바로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기고 출현하시는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구세주가 출현할 때,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진리 말씀과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찍이 예언하고 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출현하신 정도령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 받을 것이라 했다. 격암유록에도 하늘을 배신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니, 모세의 행적과 구세주 정도령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 수 있다.

성경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핍박받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바로왕 앞에서 수많은 기사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보이며,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고, 풀무와 재를 던져 악질과 독종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벼락을 내려 농작물을 망치게 하여 바로왕의 허락을 받고자 했다. 바로왕이 계속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게 했다. 이튿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먼저 난 것까지 다 죽게 되었다. 바로왕의 장자도 죽고 애굽 전역에서 백성들의 애곡 소리가 진동하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떠날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바닷길을 열고 가도록 했으며, 그들이 광야에 나가 행군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모세를 원망할 때, 새벽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게 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먹고 살게 했다.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심을 잘 지켜나가도록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사이적을 일으킨 것 같이, 20세기 후반에 출현하신 이긴자 구세주 정도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사이적을 일으켰다. 이처럼 구세주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은, 오늘날 물질문명에 지배되어 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쳐 영생의 진리 말씀과 감로 이슬성신의 역사를 통하여 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2면 하단에서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2〉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식"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며 누구든지 고통이 없는 기쁨의 에덴동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행복한 에덴동산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구구절절 씌어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신이며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기록된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라"는 말씀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1서 3장 2절에 기록된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의 자녀니라"는 말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삶

직접 표현하라

피터 드러커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단순하게 하라. 당신이 하는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둘째, 언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경어를 쓰는 것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셋째, 절대로 누가 옳은지를 물어보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물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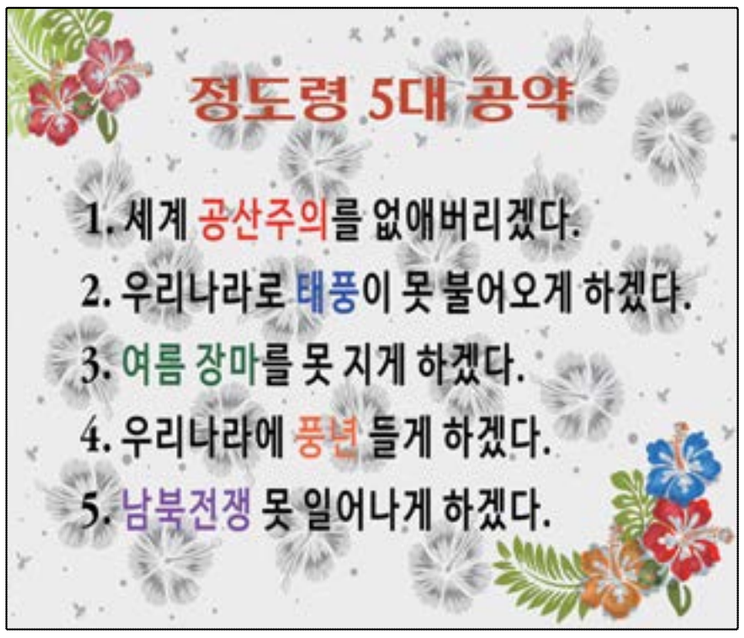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은 무한대이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뤄진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배려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가까운 이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 상태다. 긍정성 향상을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한다면, 감사하기 훈련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행복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고 성공은 '고맙습니다!'가 보장한다는 말이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중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만한 일을 다섯 개씩 적는 감사 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석 달을 계속해서 쓰면 주위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변한 내 모습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고 한다.

2500년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섭공이라는 초나라 제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니 인구가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초조해진 섭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날마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니 천리장성을 쌓아서 막을까요?' 그러자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라고 대답하였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면 흔히들 가까운 사람은 제쳐두고 남에게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부모, 배우자, 자녀,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 등 허물없는 이들에게 먼저 잘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인정해주어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야기해주어라.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글로 써주어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직접 말이나 글로 표현하라.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는 정치, 기업경영, 가정사, 친구관계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